

『개벽』의 ‘表象空間’에 나타난 매체적 성격 —표지 및 목차 분석을 중심으로

許 洙*

- | | |
|----------------------|------------------------|
| I. 머리말 | III. 표상공간의 계기적 변동과 매체성 |
| II. 『개벽』의 표지 및 목차 검토 | IV. 맺음말 |

•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표지·목차를 중심으로 한 『개벽』의 ‘표상공간’을 분석하여 근대적 매체로서 『개벽』이 가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먼저 표지의 경우 ‘텍스트 중심형’이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이미지 중심형’은 1호부터 30호에 집중되어 나타났고, ‘혼합형’은 31호부터 43호에 이르는 짧은 기간에 집중되었다. 목차공간은 ‘계몽의 영역’, ‘소통의 영역’, ‘대중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영역간 구분이 잠재되어 있던 ‘형성기’(1호~19호), 구분선이 나타나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안정기’(20호~40호), 영역 구분이 급격히 교란되는 ‘격동기’(41호~72호)로 구분된다.

표상공간의 변화를 주요 논조변화와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파악할 경우 『개벽』이 발간된 6년의 기간은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1호~30호)에는 종교성과 정치성이 약화된 매체 공간이 기능별로 3개의 영역으로 분화되어 지속되었는데, 『개벽』 주도층은 각 영역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문화계몽을 위한 선전에 주력해 나갔다. 제2기(31호~47호)에는 정치·시사 기사의 허용조치를 계기로 『개벽』 주도층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 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朝鮮文化基本調査

* 동덕여대 연구교수.

의 결과를 『개벽』에 순차적으로 게재했다. 제2기의 전반부에는 방대한 분량의 그 결과물이 안정된 3개 영역구도를 일시적으로 교란시키기도 했다. 후반부가 되면 사회주의 관련 記事의 본격적인 소개에 즈음하여 공간의 안정성은 크게 동요하였고 3개 영역의 구분도 크게 교란되었다. 제3기(48호~72호)가 되면 공간의 격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사회주의의 영향력이 지속되었으나, ‘계몽의 영역’에서는 이돈화 등 창간주체들의 글이 핵심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사회주의 논설과 ‘공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개벽』의 표상공간이 공간적으로는 기능에 따라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지고 시간적으로는 각 영역별로 불균등하게 변화해 갔던 사실을 고려할 경우, 『개벽』 후반부에 일어난 이른바 ‘사회주의의 확산’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이 가능하다. 즉, 후기 논조의 ‘사회주의화’ 경향은 초기부터 『개벽』 주도층이 가진 ‘宗教的 理想主義’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나, 사회주의 대세론 속에서도 李敦化 등 핵심층은 사회주의와 차별화된 ‘天道教的 사회개조’의 입장을 견지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결과 이 시기 『개벽』의 논조는 양 입장 간의 불안정한 균형 상태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 주제어

『개벽』, 表象空間, 매체, 계몽의 영역, 소통의 영역, 대중의 영역

I. 머리말

일제 식민통치 아래에서 창간된 『개벽』은 검열·삭제 등의 억압을 받으면서도 사회적 계몽, 여론의 수렴과 時事동향 보도, 독자대중의 확보 등 근대적 잡지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갔다. 대부분 천도교 청년이기도 했던 『개벽』 주도층의 내면에는 천도교의 '宗教的 理想主義'에서 비롯한 계몽적 열정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 이상주의'에 잠복된 '현실초월적' 경향은 때때로 『개벽』이 매체로서 가진 일상적 한계 너머까지 분출하여 강한 정치적 효과를 낳기도 했다. 이렇듯이 '종교적 이상주의'는 현실에서 『개벽』이라는 매체를 움직이게 하면서도 결코 매체의 틀에 갇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것은 매체이론에서 말하는 '사회적 상상'에 해당한다고 할 만하다.¹⁾

본 논문은 『개벽』의 '表象空間'을 분석하여 근대적 매체로서의 성격이 그곳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파악하고, 나아가 매체적 성격과 사회적 상상 간의 상호관계가 『개벽』의 주요 시기별로 어떤 특징을 보이며 형성·전개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표상공간'이라 함은 주로 표지와 목차를 가리키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곳을, 매체와 사회적 상상이 상호 교섭하는 일종의 '상징적 공간'으로 간주했다. '매체적 성격'이란 용어는, 『개벽』이 매체로서 담당했던 역할과 속성을 '계몽성'·'소통성'·'대중성'의 상호작용으로 보려는 관점을 담기 위해 사용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지적은 그다지 새로

1) 매체이론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의에서 지적인 자극을 많이 받았다. 이기현, 『미디어로지—사회적 상상과 매체문화』, 한울아카데미, 2003. 여기서 이기현은 '사회적 상상'과 '매체'의 상호관계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상상'은 '한 사회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는 표상체계로서 집단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욕구를 표현하며, 그 구성원들의 행위양식과 정향 및 규범적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또한 그것은 '현실초월성', '개방성', '역동성', '물적 형식'을 특징으로 가진다. 한편, '매체'는 좁은 의미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에 개입하는 물적 장치'로서 사회적 통념이 번식하고 전파되는 곳이다. 사회적 상상은 '억압에 대한 전복을 시도하고 사회적 통념에 대치'함으로써 '모든 이데올로기화에 저항하고, 매체의 틀에 갇히는 것에 반항'한다(4~6면).

을 것이 없으나,²⁾ 본 논문에서는 그 요소를 ‘표상공간’이라는 영역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나아가 삼자의 상호 긴장관계에 특히 유의하여 『개벽』의 시기별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최근 『개벽』의 전·후기 논조변화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도 일정한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개벽』의 전·후기 논조변화와 관련해서는 김정인·김진우 등 단절 혹은 차이에 주목하는 입장과, 최수일·한기형 등 연속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김정인은 『개벽』이 1922년 하반기, 나아가 1923년 상반기까지도 “우파·민족주의 노선의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다가, 1924년 초부터 “사실상 지면을 좌파에게 넘겨주면서 계급론과 사회주의 운동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한다고 했다.³⁾ 최수일이, 기존의 연구가 『개벽』의 사상적 전환을 “무척 수동적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지적한 것은 김정인과 같은 이해방식을 겨냥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⁴⁾ 한편, 한기형은 “『개벽』 후반부(1924~1926)의 현저한 사회주의적 경향은, 천도교가 전략적 동반자로 선택한 사회주의의 확산이 자연스럽게 『개벽』 지면에 반영된 것과, 천도교 측이 그러한 상황을 능동적으로 자기화한 이중의 결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좀 더 유연한 입장을 보였으나, 그 역시 ‘능동성’과 ‘일관된 사상적 맥락’을 더 중시하고 있다.⁵⁾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한기형이 강조하는 ‘종교적 이상주의’에 대해 김진우는 “천도교 교리가 내포하고 있던 이상주의적 사회관을 근거로 하여, 이돈화가 이미 초기에 사회주의적 정치성향을 드러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라고 비판했다.⁶⁾ 본 논문에서는 『개벽』의 표상공간을 분석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상의 연구사적 상황에 대한 나름의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최수일은 『개벽』의 편집원리를 ‘대중성, 계몽성, 현실성’으로 본 바 있다. 崔洙逸, 「1920년대 문학과 <開闢>의 위상」,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2, 44~78면.

3) 김정인, 「『개벽』을 낳은 현실, 『개벽』에 담긴 희망」, 임경석·차혜영 외,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07, 245~246면.

4) 崔洙逸, 앞의 논문, 118면.

5) 한기형, 「『개벽』의 종교적 이상주의와 근대문학의 사상화」, 임경석·차혜영 외, 앞의 책, 417면.

6) 김진우, 「『개벽』과 1920년대 초반 문학담론의 형성」, 한국현대문학회, 『한국현대문학연구』 19, 2006, 230~23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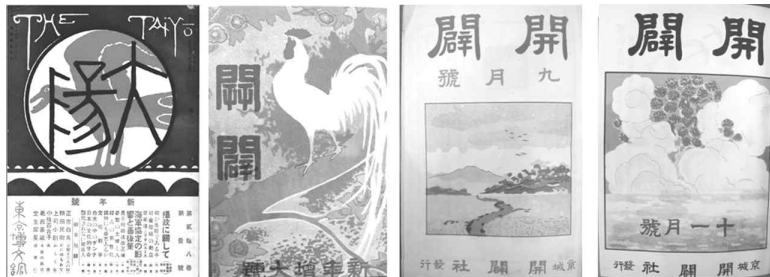
II. 『개벽』의 표지 및 목차 검토

1. 표지 디자인의 유형

표지는 잡지의 얼굴에 해당하는 것으로, 독자들의 주의를 끄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담겨져 있다. 국내의 잡지뿐만 아니라 『태양』 등 당시의 일본 잡지 등과 비교해 봐도 『개벽』의 표지에는 다양한 이미지가 등장하는 것이 특징적이다.⁷⁾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우나, <그림 1>에 제시된 천도교의 기관지 『天道教會月報』의 표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⁸⁾

여기서 구름과 밤바다, 보름달을 배경으로 “天道教會月報”라는 題號가 자리 잡고 있는 장면은 水雲 - 海月 - 義菴으로 이어지는 천도교의 교주와 教徒 대중을 상징한다. 또한 표지에 관한 설명은 천도교의 역사와 대중을 道와 心이라는 공통기반에서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천도교의 역사를 천 - 지 - 인의 관계로 파악함으로써 의암 손병희 단계가 수운(‘天’)과 해월(‘地’)

7) 아래 그림은 1921~22년에 나온 『태양』 및 『개벽』의 표지를 비교한 것이다. 『태양』의 경우 맨 좌측과 같은 태양 속의 새(삼족오) 표지가 계속된다는 점에서 이미지 위주의 도안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시종일관 이 도안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채롭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와 비교해서 『개벽』의 표지는 아래의 대표적인 예와 같이 다양한 형태가 나타났다.



8) <그림 1>의 표지는 인쇄상태가 좋은 『天道教會月報』 동권 37호(1913.8)의 것을 활용했는데 이와 동일한 표지는 이미 동권 31호(1913.2)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천도교회월보』의 표지와 표지설명(1913.8)



本報表粧也,
 上雲下海中有月이오
 義字形이 又包其大니.
 盖取諸四海雲中月一鑑之義也로다.
 道氣, 若大雲彌天은
 號水雲齋之 天宗大神師心也오.
 道波, 若大海含地
 號海月堂之 道宗神師心也오.
 導正義天地
 號義庵之 敎宗聖師心也오.
 道光이 若月在太空은
 我宗徒累百萬人心也.

단계를 종합하는 ‘人’의 위치에 있음을 암시하며, 나아가 이것을 모두 회통하여 ‘천도교’라는 교명 속에 집약시키고 있다. 이 표지의 그림은 천도교의 역사를 압축한 것이면서 동시에 교주와 대중의 통일, 나아가 인내천이라는 천도교적 理想을 담은 것이기도 했다. 이처럼 천도교의 경우 이미 1910년대부터 고도로 상징화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천도교의 종교적 정체성을 선전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개벽』 표지가 가진 다양한 이미지, 그리고 그 이미지가 가진 상징적 성격은 천도교라는 종교적 전통과 일정하게 관련된다고 보인다.

『개벽』의 경우 표지 이외에 광고 등에서도 象徵과 圖案 등 이미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증거는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개벽』 16호 등에는 ‘개벽사 상공도안부’ 명의로 다음과 같은 광고 문안이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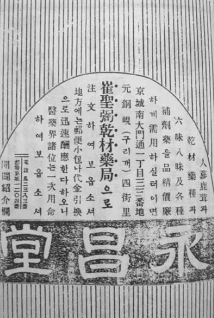
“구주대전에는 우리가 참가치 안이하엿지만은 대전후 세계상업전쟁에는 우리도 참가하지 안을수가 업습니다. …… 이십세기의 문명은 실로 선전과 광고의 문명이올시다. 정치도 선전과 광고이며 주의도 선전과 광고이고 학술에도 선전과 광고이올시다. 하물며 적어도 이천만의 고객을 쓰으랴고하는 상품의 판매소와 제조의 공장에서 선전과 광고가 안이고 무엇으로 商戰에 참가할야고 합니까. 현대의 상전에는 여러분의 제조물과 상품은 병졸이요 선전과 광고는 적진을 함락하는 攻城砲이올시다. 아모리 명장과 용졸이 모

이엇더래도 총기가 업고야 무엇으로 승전을 바라겠습니까? 이와가더 모처럼 여러분의 내신 광고가 도안, 문안, 색채, 배열이 적당치 못하면 누가 그 광고를 보겠습니까? 기십수백원요금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으로 특효잇는 광고를 원하시거던 開關社商工圖案部로 오시오. 斯界에 전문가와 기술자를 망라하여 본사 학예부장 현희운씨 감독하에서 상공부가 제위의 만단의 편리를 圖합니다.”(밀줄, 인용자)⁹⁾

〈그림 2〉의 ‘永昌堂’ 광고들은 이런 시스템 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개벽』 20호 광고는 『개벽』 18호나 21호의 텍스트형 광고 내용을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는 이미지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것을 보더라도 개벽사 상공도안부는 광고제작에서 높은 형상화 기술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개벽』 표지디자인의 기본형은 題號가 위치한 상단부, 주요 기사명이나 이미지가 위치한 중단부, 개벽 호수나 출판사명 등의 정보가 위치한 하단부로 이루어진다. 중단부에 주요 기사명이나 이미지가 생략될 경우, 상단에 위치한 제호가 여기로 내려와 세로로 배열되는 경우가 많으며, 제호 대신 ‘○월 호’ 등의 표현이 이 곳을 차지하기도 한다. 한편 표지와 관련하여 특기할 것은

〈그림 2〉 『개벽』에 실린 ‘永昌堂’ 광고

		
18호(1921.12)	20호(1922.2)	21호(1922.3)

9) 『개벽』 16호, 1921.10, 128~129면.

일정 기간 동안 상단부에서제호 위에 “LA KREADO”라는 에스페란토어가 첨가되었던 사실이다.¹⁰⁾ “창조(The Creation)”를 의미하는 이 단어의 등장은 단순한 修辭的 장식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편집진의 의지가 投射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그림 3>과 같이 중단부에 이미지(지도 포함)가 배치된 경우를 ‘이미지 중심형’, 이미지가 빠지고 『개벽』의 정보를 나타내는 글자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를 ‘텍스트 중심형’, 그리고 상단부에 “LA KREADO”라는 문자가 오고 중단부에 이미지가 배치된 경우를 ‘혼합형’으로 명명해서 삼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¹¹⁾

10) 동북아시아 지도, ‘창조’라는 의미의 에스페란토어 등은 모두 『개벽』 31호(1923.1)에서 처음 등장한 것인데 이 ‘창조’는 1월부터 7월까지 연속해서 나타나고, 9월호 및 1924년 1월호 표지를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1934년 11월, 차상찬 명의로 4회에 걸쳐 발간된 ‘복간호’ 표지에는 이 ‘창조’가 재등장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복간호 1호에서도 社友制 확대강화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점으로 보아 ‘창조’를 뜻하는 에스페란토어와 사우제는 『개벽』 주도층이 ‘도약’이나 ‘중흥’ 등 어떤 ‘획기’를 만들 때 중요한 상징적 자원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11) 물론 ‘개벽’이라는 제호 등을 단순히 ‘텍스트’로 볼 수 있는가, 그것도 이미지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제호의 경우만 봐도 고딕체 이외에도 서예의 해서, 행서체 등의 변화가 보이기도 하고, 어떤 시점에서는 제호에 관하여 독자의 현상공모를 받기도 했다. 또한 동그라미 두 개를 사용해서 만든 도안을 싣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러한 제호도 이미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는 표지가 ‘개벽’ 잡지의 주요정보를 나타내는 문자 위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것을 ‘텍스트 중심형’으로 보았다. ‘이미지’의 범주에서 제호 등을 배제한 것은, ‘이미지’의 기준을, ‘표지(및 목차)’의 최소정보를 넘어서는 것’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개벽』에서 그러한 ‘이미지’들은 대개 그림이나 지도 등으로 제시되며 『개벽』 주체들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개벽’이란 제호는, 그것이 아무리 다양하게 표시되어도 『개벽』의 제호를 나타내기 위한 ‘기호’에 불과하다. 또한 이 기준에서 보면 ‘LA KREADO’도 ‘텍스트’이지만 『개벽』의 기본 정보를 초과하는 특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과 이미지가 공존하는 경우엔 ‘혼합형’으로 분류했다.

〈그림 3〉 표지의 유형별 분류

텍스트 중심형	이미지 중심형	혼합형
		
51호(1924.9)	14호(1921.8)	34호(1923.4)

〈부표 1〉을 참고하면, 텍스트 중심형의 상대적 비중이 가장 높은 시기는 39호(23.9)~72호(26.8)이며, 이미지 중심형은 1호(20.6)~30호(22.12)에 집중되어 있다. 혼합형은 숫자가 많지는 않으며 31호(23.1)~43호(24.1)에 한정되어 있다.

2. 목차공간의 분할과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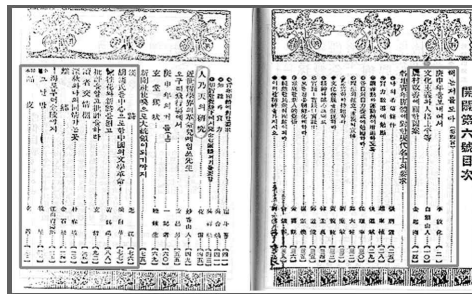
목차는 『개벽』에 실린 기사의 제목과 필자, 수록 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1~2면의 지면에 모아놓았다는 점에서 '본문의 縮圖'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목차는 특정 기사를 강조하려는 편집진의 의도 등을 반영하여 제목을 확대·강조하거나 기사제목을 본문 순서와 다르게 배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점에서 목차는 본문의 상태를 반영하되 '假象的으로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공간은 물리적으로 보면 1~2면의 지면 위에 조성된 평면 공간이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非균질적이며 位階的인 공간이기도 하다. 『개벽』과 같이 계몽적 성격이 강한 잡지인 경우 계몽적 논설의 비중이 특히 높은 경향을 보인다. 시기별로 편차는 있지만 대체적인 경향을 보면, 목차에서 신문의 사설에

해당하는 ‘권두언’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러한 ‘주요논설’ 몇 개가 배치된다.¹²⁾ 문화운동의 선전에 주력하던 초기에는 이돈화, 김기전, 박달성 등의 중심인물은 매회, 적게는 1인당 1편 많게는 2~3편씩 이 논설들을 집필했다. 그러므로 『개벽』에 실린 기사들은 그 비중이 ‘1/n’은 결코 아니다. ‘주요논설’ 특히 그 가운데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간판논설(=‘대표논설’)을 분석할 때에는 그것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적인 무게와 가중치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균질성과 위계성은 논설 차원이 아니라 목차공간 전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개벽』의 목차공간은 ‘계몽의 영역’, ‘소통의 영역’, ‘대중의 영역’으로 부를 수 있는 3개 영역을 기본형으로 가진다.¹³⁾ ‘계몽의 영역’은 ‘주요 논설’이 밀집해 있는 목차 앞부분의 공간을 가리키는데 대체로 설문조사와 같은 ‘非논설’류 기사로 시작하는 ‘소통의 영역’과 경계를 이루면서, 편집진의 對사회적 발언·주장을 담고 있다. ‘소통의 영역’은 앞으로는 ‘계몽의 영역’과, 뒤로는 ‘대중의 영역’과 경계를 맞대고 있으며 설명문·각종 조사·일반 논설·時事 등에 관한 기사를 통해 독자들과 좀 더 자유로운 형식의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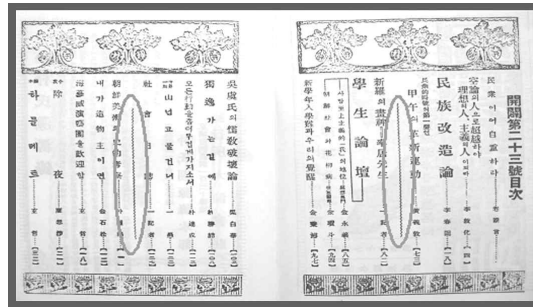
- 12) 본 논문에서는 ‘주요논설’이라는 용어를, 조금 뒤에 설명할 ‘계몽의 영역’에 실린 논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개벽』 주도층은 독자들을 향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주장과 입장을 ‘주요논설’의 위치에 배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 13) 아래는 『개벽』 6호(영역별 구분선 등장 이전)와 『개벽』 23호(구분선 등장 이후)의 목차이다. 『개벽』 6호의 경우 ‘개벽 제6호 목차’라는 글 바로 다음 사각형 부분이 ‘계몽의 영역’이고 뒷 부분의 사각형 부분이 ‘대중의 영역’에 해당한다. ‘소통의 영역’은 그 중간지대이다.



회적 소통을 도모하는 곳이다.¹⁴⁾ '대중의 영역'은 주로 문예작품이나 평론기사 등을 모아놓은 목차의 마지막 공간을 가리키는데, 창작물이나 번역물, 독자투고 작품 등을 게재함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잡지의 대중적 기반을 확대해 가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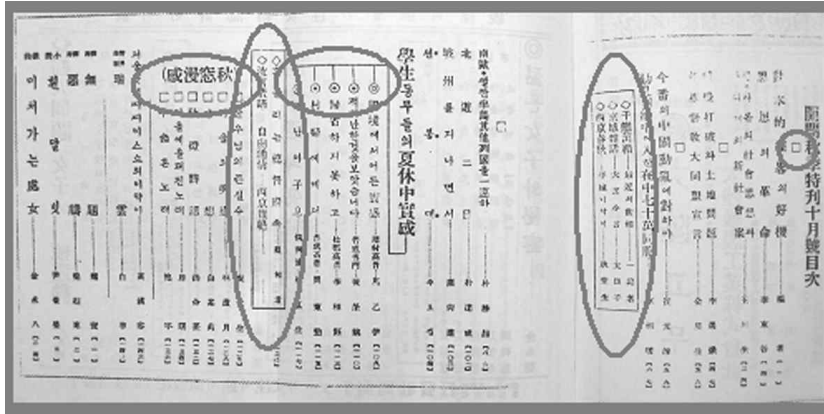
〈부표 2〉를 참고하면, 목차공간의 시기별 변동양상은 각각 '形成期', '安定期', '激動期'로 구분할 수 있다. 형성기는 1호(20.6)~19호(22.1)로 영역간의 구분이 내용적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으나 외형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시기이다. 안정기는 20호(22.2)~40호(23.10)로 3개 영역이 구분선("}")에 의해 뚜렷이 나누어져 지속되는 시기이다. 격동기는 41호(23.11)~72호(26.8)로 구분선 모양과 기사제목 書體의 변동, 3개 영역 내부의 통일성 파괴 등 전반적으로 변화가 격심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다. 〈그림 4〉는 격동기에 해당하는 『개벽』 52호(1924.10)의 목차로서, 굵은 원을 표시한 부분이 앞 시기와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또한 편집자가 목차의 기사배열을 본문 기사순서와 다르게 배치하는 '操作' 현상도 이 '격동기'에만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 '조작율'이란 용어는 잡지 본문의 실제적인 기사 배열 순서와 목차상의 배열 순서 사이에 놓인 차이를 계량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잡지 편집작업의 순서를 생각할 때, 통상 잡지의



- 14) 물론 '소통의 영역'에 실린 글이 지금의 인터넷 공간과 같은 양방향적 소통과 같은 효과를 낳았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강한 계몽적 효과를 가진 글도 많이 실렸다. 이 명칭은 3공간 구분에서 갖는 이 공간의 상대적인 특성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계몽의 영역'에 비해 이 공간에서는 사회적 동향을 반영하거나 여론을 수렴하는 글 등이 활발하게 게재되었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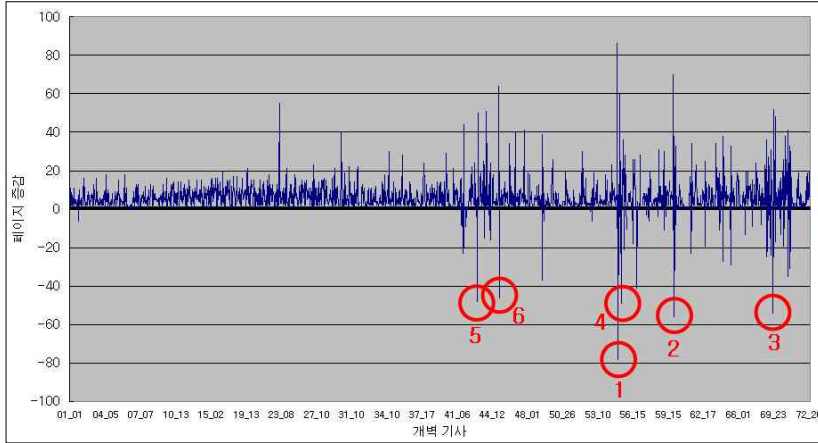
〈그림 4〉 ‘격동기’ 목차 공간의 주요 양상



기사 본문을 배열해 놓고 面數를 매긴 뒤 맨 마지막에 목차를 작성한다고 본다면, 이 조작율은 개벽 편집진이 여러 가지 이유로 목차상에서 본문기사 제목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발생한다. 『개벽』 목차상의 면수 증가분을 살펴보면, 특정기사를 그 기사가 있어야 할 곳에서 빼내어 앞이나 뒤로 옮겼을 경우, 새로 자리 잡은 곳의 앞 혹은 뒤쪽에 인접한 기사와는 어느 한쪽에서 면수의 증가분이 “-”가 된다. 이 “-”의 증분은 곧 ‘조작’을 말해주는 지표이며 기사의 이동거리가 크면 이 수치의 절대값도 커지는데, 이 경우를 ‘조작율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조작율은 『개벽』 편집진의 개입 정도를 보여주는 것인데, 아래 그래프에서 ‘페이지 증감’이 마이너스(“-”)를 보인 부분이 곧 ‘조작율’에 해당한다.¹⁵⁾

15) 〈그림 5〉에서 굵은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참조하면서, 이동이 일어난 기사와 조작율을 그 이동거리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언급해 보면, 「牛頤」(55호, 78+) > 「女子曰男子曰」(60호, 56+) > 「牛耳洞의 봄을 찾고서」(69호, -52) > 「南信北通」(55호, 49+) > 「流言蜚語」(42호, -48) > 「거르른터(小說)」(44호, -46) 순이다. 괄호안 수치의 ‘+’는 ‘前進조작’으로서 뒷 기사에 대한 ‘쪽수의 증가분’을, ‘-’는 ‘後進조작’으로서 앞 기사에 대한 ‘쪽수의 감소분’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5〉 『개벽』 목차에 나타난 기사 순서별 페이지 증감 추이



왜 『개벽』 후반부로 접어들어서 편집주체들은 이러한 조작을 많이 행하게 되었을까. 이 점을 해명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는 하지 못했지만, 〈부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첫째, 조작이 기사들의 묶음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조작의 대부분이 소통 영역에 집중되어 일어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첫째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작의 형태를 유형화하면, 기사의 '개별이동'과 '집단이동'으로 구분 가능한데, 개별이동은 '단순진퇴'(단순 자리바꿈)와 '개별편입'(한 기사가 묶음기사에 삽입)으로, 집단이동은 '내부흔거'(묶음기사 간 순서 뒤섞임)와 '집단진퇴'(묶음기사 자체의 이동)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단순진퇴' 이외의 경우는 기사의 묶음과 직접 관련된다. '단순진퇴'의 경우에는 조작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글의 종류(수필, 소설 등)가 비슷한 것 끼리 모으기 위해 옮기는 경우(〈부표 3〉의 연번 '01' 등)도, 비록 가시적인 '묶음'표시가 없더라도 크게 보면 기사의 '묶음'과 관련이 되는 것이다. 또한 '단순진퇴'로 분류된 경우 중에는 묶음기사 내부에서의 자리바꿈도 포함시켰으므로 이 경우도 묶음기사와 밀접하다.('12'의 경우) 어쨌든 이런 경우를 포함하면, 위 표의 '묶음관련'란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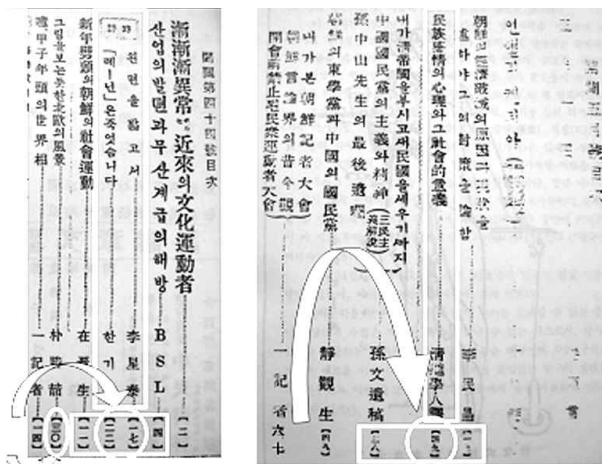
알 수 있듯이 묶음과 관련한 조작 건수가 모두 25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친다.

둘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59개의 조작기사 중에서 계몽 영역과 관련 있는 경우는 4건, 대중 영역과 관계있는 경우는 10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45건은 소통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그럼 이러한 기사의 '묶음' 행위가 왜 소통의 영역에 치중해서 이루어졌을까. 지금 단계에서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 특정 기사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전 같으면 '계몽의 영역'에 들어가기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시평]「원편을 밟고서」·「레닌은 죽었습니다」('08), 그리고 목차공간의 형태나 쪽 수로 보면 '소통의 영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계몽의 영역'으로 밀고 들어간 「민족감정의 심리와 그 사회적 의의」(번역문, '27') 등이 대표적이다.¹⁶⁾ 이외에도 기사제목을 강조하기 위해 제목의 일부 혹은 전부에 방점('·')을 찍는 경우도 더러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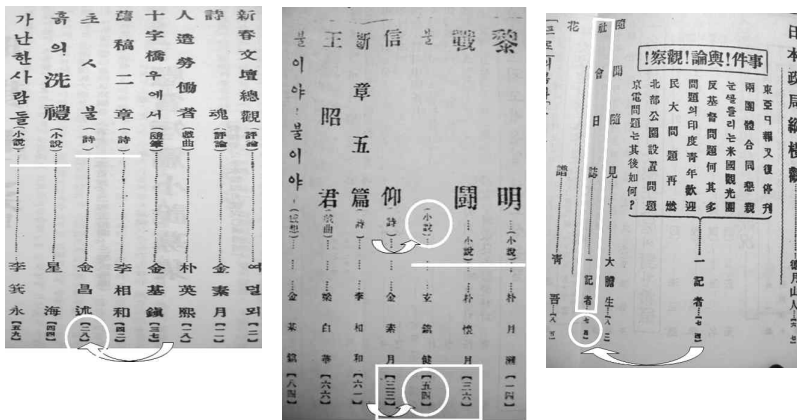
둘째, 목차공간의 '정돈'을 위해서이다. 詩는 詩끼리 한테 묶어 놓기 위해 옮긴 사례가 보인다.('19'·'29' 등) 또한 時事적인 내용의 경우 한테 묶거나, 소통의 영역 마지막 부분에 두기 위해 일부 기사를 옮긴 경우도 있다.('44'

16) <부표 3>의 연번 '08', '27'에 관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것이다.



등)17) 이 '정돈'의 경우에는 정돈의 '감각'이 이전과 달라졌을 수 있다는 주관적 요인과, 정돈이 불가피하게 될 만큼 실제적인 본문 구성이 이전보다 산만해졌을 수 있다는 객관적 요인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전반부와 달리 3개 영역의 구분선을 무시하고 기사를 배열하거나 구분기호를 다른 형태로 바꾸어 다수를 사용하며, 특히 구분기호로 '!'를 사용해서 이 기호 안에 '관찰과 주장', '참고와 연구' 등과 같은 표현을 넣은 것은 감각의 차이에서 기인한 바 크다고 생각된다. 한편, '객관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할 수 있다. 『개벽』 전반부에는 '대중의 영역'에서 목차는 장르별로 정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는 본문의 상태를 반영한 것이다. 시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후반부에 와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개벽』 본문의 기사를 이전처럼 정돈하지 못하자 본문의 무질서함을 감추기 위한 일종의 '포장' 차원에서 조작을 가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이 경우가 있었다면 그것은 편집과 관련한 일종의 '기술적 한계'를 역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한 컨텍스트적 맥락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초기부터의 『개벽』 주도층이 전국조사에 힘을 집중한 나머지 일손의 부족 등이 초래되었다면 그것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17) <부표 3>의 연번 '19', '29', '44'에 관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것이다.



Ⅲ. 표상공간의 계기적 변동과 매체성

1. 주요논설과 표상공간의 종합적 이해

본 논문 제2장에서 살펴본 표지의 시기별 분포와 목차의 시기별 변화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적 격차가 보인다. 즉, 표지의 경우 이미지 중심형, 혼합형, 텍스트 중심형이 각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점이 1호(20.6), 31호(23.1), 39호(23.9)인 반면, 목차의 경우 형성기, 안정기, 격동기의 기점은 각각 1호(20.6), 20호(22.2), 41호(23.11)이다. 따라서 20호(22.2), 31호(23.1), 39·41호(23.9, 23.11)의 세 곳이 표상공간 상의 중요한 '획기'로 일단 고려될 수 있다. 흥미롭게도 『개벽』의 논조 등을 참고하면 대체로 이 시점들은 문화운동 비판, 민족담론 대두, 계급담론 대두 시점과 각각 대응한다.

그러나 세 시점이 『개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동일한 비중을 가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 중 31호는 단순히 민족담론이 대두한 시점이 아니라 『개벽』 초기부터 억압되어 온 정치성이 전면적으로 표방된 시기라는 점에서 그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가장 큰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애초에 『개벽』 주도층이 가진 종교적 이상주의가 '민족담론' 및 '계급담론'과 계기적으로 결합하면서 31호로부터 시작하여 41호를 넘어서 지속되는 표상공간 상의 변동을 유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종교적 이상주의의 정치적 표출은 48호(24.6) 무렵부터 그 양상을 달리하게 된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무렵부터 목차공간 상에 1년 가량 등장하지 않던 이돈화가 주요논설에서 글을 게재하기 시작했다. 김기전의 논설도 이돈화만큼 극적이지는 않지만 이 무렵부터 더욱 중요한 위치에 실리기 시작했다. 이돈화는 천도교의 대표적 이론가이자 『개벽』 창간호부터 72호까지 줄곧 편집인의 직함을 유지하면서 활발한 문필활동을 했던, 『개벽』 최대의 논객이었다. 김기전도 편집주간으로서 『개벽』의 실질적인 편집과 구성, 발간을 좌우했던 인물이다. 『개벽』 48호가 가진 분기점적 성격은 『개벽』 주도층의 핵심이라 할 이돈화·김기전의 논설 비중이

강화되었다는 형태적 측면뿐만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무렵에 실린 이돈화의 글은 사회주의의 계급담론을 대폭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심의 초점은 천도교의 종교적 관점을 전면에 제기하는 데 있었다.¹⁸⁾ 이와 같이 이돈화 등의 글이 목차공간 상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개벽』 48호부터 이전과 크게 달라지고 내용 면에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주의와의 차이가 점점 강조되는 사실을 볼 때 이 시점을 시기구분에서 또 하나의 획기로 볼 수 있다.

〈표 1〉 『개벽』 후반부 이돈화, 김기전 논설의 목차상 위치

호	발간 연월	사실/권두언	이돈화	김기전
45	24.03	甲申年來의 「思想」과 壬戌年來의 「主義」	世界三大宗教의 差異點과 天道教의 人乃天主義에 對한 一瞥	②上下·尊卑·貴賤, 이것이 儒家思想의 基礎觀念이다 ③二千年 前の 勞農主義者-墨子
46	24.04	事必歸正	朝鮮勞農運動과 團結方法	④世界社會主義運動의 史的 記述 ⑤赤色組合과 黃色組合
47	24.05	最近의 感		④떠드는 世上, 變하는 세상 이것을 추려서 쓰면 이러케 된다
48	24.06		①仁愛天命, 勤勉에 對한 疑問	네로 보고 지금으로 본 서울 中心勢力의 流動 在京城 各教會의 本部를 歷訪하고

(다음 면에 계속)

18) 이돈화는 이미 「世界三大宗教의 差異點과 天道教의 人乃天主義에 對한 一瞥」(45호, 사상비판호)에서 기독교나 유교의 핵심사상을 비판하고 천도교의 종교적 特長을 강하게 부각시킨다. 그리고 이런 논조는 「仁愛, 天命, 勤勉에 대한 의문」(48호)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 단계까지는 잠재적이던 사회주의적 '계급의식'과의 차이화는 「敎外別傳」(53호)에서 '良心'의 강조로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사람성과 意識態의 關係」(59호)에서 '초월의식' 강조로 뚜렷해진다. 『개벽』의 이돈화 논설이 '종교성'을 강하게 띠고 제재된 것은 창간호부터 이루어진 일련의 「인내천의 연구」 연재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계몽의 영역'에서는 처음이라 할 수 있다. 이돈화가 사회주의와의 차별화를 종교성의 환기와 '대표논설' 자리의 점유를 통해 전개하는 양상은 초기의 '개조론' 수용 당시와 매우 흡사하다. 이돈화는 나중에 1920년대에 전개된 자신의 사상적 경로를 '정신개벽·민족개벽·사회개벽'으로 개념화하는데, 필자가 보기에 '사회개벽'의 기점을 이 시점부터로 올려 잡아도 무방할 것 같다. 그 핵심은 '地上天國'을 통해 사회주의의 '사회개조'와 천도교의 그것을 의식적으로 분리시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호	발간 연월	사실/권두언	이돈화	김기전
49	24.07		②天國行 夏休중의 학생제군을 위하 야—어린이들과 結誼하라	④朝鮮苦 世上은 또 이만큼 變하얏다 國際漫話 夏休 中 歸鄉하는 學生 諸君에게- 첫째, 사람 냄새를 좀 맛타 볼 일
50	24.08		②天國行	①不知手之舞・足之蹈之
51	24.09		①現代青年의 新修養	朝鮮文化基本調査(其八)—平南 道號 西鮮과 南鮮의 思想上 分野, 政治 運動에 影響 서고 社會運動에 뒤 떨어진 西鮮
52	24.10			
53	24.11	黑帝의 幕下에 모여 드는 無產軍	①敎外別傳	
54	24.12			②甲子一年總觀, 생각나는 癸亥一 年
55	25.01		①赤子主義에 돌아오라, 그 리하여 生魂이 充溢한 人種 國을 創造하자	②허튼 수작 甲子一年總觀(續)
56	25.02	新春이나 窮春이나, 救濟를 要할 가장 緊 要한 時機는 왔다.	①사람의 힘과 돈의 힘, 사 람의 힘으로 사람을 돕는 社 會를 만들어 노하여 할 것이 안입니까	
57	25.03			①죽을 사람의 生活과 살 사람의 生 活 喜悲交集의 教育界의 昔今
58	25.04			선생님네 處地에 鑑하야
59	25.05	五月一日	①사람性과 意識態의 關係	

비고: 기사제목 앞에 동그라미로 된 숫자는 권두언을 제외하고 계산한 목차상의 순서를 가리킨.
이 표에서 이 숫자에 해당하는 기사는 대체로 '계몽의 영역'에 배치된 것으로서 '주요논설'
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이 『개벽』의 논조 변화와 표상공간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면 『개벽』이 지속되었던 6년의 기간은 제1기를 1호(20.6)~30호(22.12), 제2기
를 31호(23.1)~47(24.5), 제3기를 48호(24.6)~72호(26.8)로 나눌 수 있다.

2. 『개벽』의 시기구분과 매체적 성격

1) '문화적 계몽'을 위한 미디어 공간의 鼎立 (1~30호)

『개벽』 전체에 실린 이미지 중심형 표지의 대부분은 이 시기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이미 『天道教會月報』 표지(1913.2) 등의 상징에서 선보인 천도교의 종교적 이상주의는 3.1운동 이후 고양된 민족정서와 결합하여 창간호의 '포효하는 호랑이'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반도를 상징하는 이 그림은 총독부의 조치로 삭제되었다. <그림 6>에서와 같이 우리는 이 그림을 1년 후에 게재된 『개벽』 13호 표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개벽』 3·4호에는 '독수리' 그림이 표지에 실렸다. <그림 7>의 a)에 제시된 『개벽』 3호의 '독수리' 그림은 김기전이 『개벽』 1호와 2호에 연재한 니체 소개 글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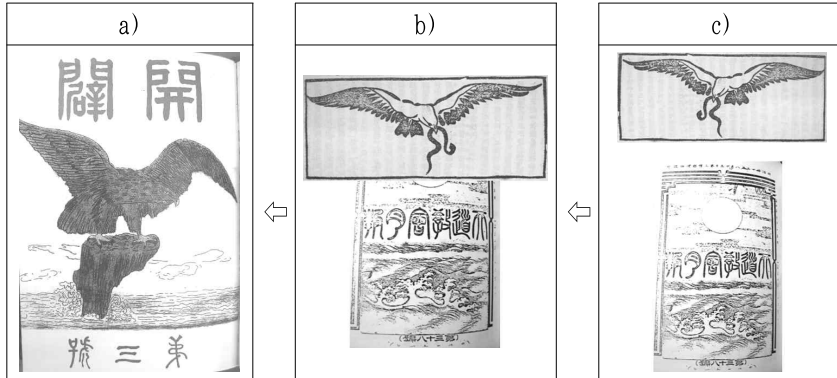
c)의 상단에 있는 새와 뱀 그림은 『개벽』 1호의 니체 소개 글 속에 실린 삽화로써,¹⁹⁾ 이 글에서 새와 뱀은 니체의 '짜라투스트라'가 좌우에 소지한 독수리

<그림 6> 『개벽』 13호 표지



19) 小春, 「力萬能主義의 急先鋒, 푸리드리히, 니체 先生을 紹介함」, 『開闢』 제1호, 1920.6, 73면

〈그림 7〉 주요 표지그림 간의 圖像學的 연관성



뱀을 상징한다고 설명되었다.²⁰⁾ 이 글에 따르면 독수리는 ‘창조적 초인의 상징’이고, 뱀은 ‘숙명적인 영원윤회의 상징’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그림이 비슷한 시기 일본에서 발행된 『改造』 잡지의 삽화와 동일하다는 사실이다.²¹⁾ 그런데 이 뱀이 상징하는 ‘영원윤회’는 1910년대 천도교계의 종교적 상징 가운데 밀물·썰물을 반복하는 바다와 상통한다고 생각된다.²²⁾ 이렇게 본다면 〈그림 7〉의 ‘c) → b) → a)’의 과정이 성립된다. 즉, 1910년대에 형상화된 종교적 상징의 바탕에 니체적 ‘초인’의 상징이 전파·결합된 결과가 『개벽』 3·4

20) 妙香山人, 「新-人生標의 樹立者, 푸리드리취, 니체 先生을 紹介함」, 『開關』 제2호, 1920.7, 78면

21) 이 ‘독수리와 뱀’ 그림은 『改造』 1921년 7월호 권두언 삽화와 일치한다. 앞으로 『改造』 잡지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겠지만, 동일한 삽화가 『改造』 1922년 3월호 권두언에도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그림은 당시 『改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 김기전도 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2) 〈그림 7〉 a)에서 독수리는 파도가 부서지는 암초 위에 서서 날개를 펴득이고 있다. 오랜 세월동안 밀물과 썰물을 반복하는 바닷물과 묵묵부답의 바위, 그리고 이에 대비되는 독수리의 날갯짓은 각각 니체의 ‘영원 윤회’와 ‘초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니체적 초인의 상징이 『開關』의 얼굴을 장식한 것은 ‘초인’의 이미지가 그들의 ‘新人’, 즉 ‘새사람’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許洙, 『일제하 李敦化의 사회사상과 天道教-宗教的 啓蒙』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67면 각주21 참조.

호의 표지 그림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개벽』 주도층은 1910년대에 가진 천도교의 종교성을 스스로 '억제'하면서 '超人'이라는 '인간론'적 차원으로 변형시켜 제시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로부터 종교적 이상주의의 세속화·온건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종교성의 자기억제와 정치성의 去勢과정을 통과하면서 『개벽』은 근대적 매체로서 '탄생'했다. 『개벽』 주도층은 종교성과 정치성이 표백된 매체 공간을 활용하면서 문화적 계몽을 주도해 나갔다. '계몽의 영역'에서는 이돈화 주도로 '文化主義'와 '大食主義', 그리고 '사람性主義' 등 방향제시형 논설이 계기적으로 배치되었고,²³⁾ '소통의 영역'에서는 주요 名士들의 설문응답과 개조사상가, 그리고 독자투표로 집계된 한국 10대 偉人 등이 소개되었다. 20호부터 '대중의 영역'이 구분되면서 점차 가시화된 3개 영역의 정립구도는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다.

2) '정치적인 것'의 침투와 공간의 격동 (31~47호)

1922년 9월 총독부의 정치기사 게재허용 조치 등을 배경으로 하여 『개벽』

23) 이돈화의 논설과 목차공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호수	발행일자	계몽의 영역	소통의 영역
제1호	1920. 06. 25.		人乃天의 研究
제2호	1920. 07. 25.		人乃天의 研究
제3호	1920. 08. 25.		人乃天의 研究(續)
제4호	1920. 09. 25.		人乃天의 研究(續)
제5호	1920. 11. 01.		人乃天의 研究(續)
제6호	1920. 12. 01.	文化主義와 人格上平等	人乃天의 研究(續)
제7호	1921. 01. 01.	大食主義를 論하노라	意識上으로 觀한 自我의 觀念(人乃天 研究의 其七)
제8호	1921. 02. 01.		疑問者에게 答함(人乃天의 研究 其八)
제9호	1921. 03. 01.		人은 果然 全知全能이 될가(人乃天 究研 其九)
제10호	1921. 04. 01.	사람性의 解放과 사람性의 自然主義	
제16호	1921. 10. 01.		페이엘빠하(Feuerbach)의 「사람」論에 就하여 現代倫理思想의 概觀
제17호	1921. 11. 01.	時代精神에 合一된 사람性主義	

주도층은 1923년 1월부터 다음과 같이 『개벽』의 新紀元을 표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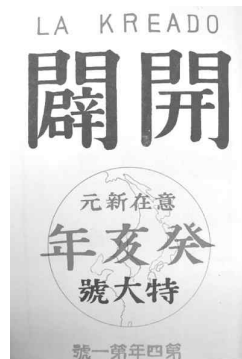
본지에 연재할 중요도시의 순례기는 본사에 금후 계획과 相須해야 만다
시 어찌한 형식으로써 나타날 것이며 오래동안 연재해야 독자의 최후까지
의 인내에 訴하는 문예부의 제 계속품은 내월호 즉 연말호로써 대체로 罅을
막게 되겠습니다.²⁴⁾

외국인의 경제적 세력을 기록한 제 문제의 中에 나타난 통계는 모다 총독
부의 手로 발표된 그것에 依하였습시다. 마음에 罅하치 못하나 罅작히 할
수가 업습시다. 이러한 조사의 方面에 向하여 우리는 세삼스럽게 노력하려
합니다. …… 신년호는 한번 그럴듯하게 될 것 갓습시다. 다른 이유는 다 除
止하고라도 조선인의 手에 成한다는 잡지계의 體面을 위하여 格外努力하지
아니할 수 업습시다.²⁵⁾

또한 그들은 정치적 중심세력의 필요성을 공
공연하게 선동하는 한편, 간판 논설로 ‘汎人間
的 民族主義’라는 정치사상을 선언했다. <그림
8>처럼 표지의 최상단에 선보인 ‘LA KREADO’
(=創造)라는 에스페란토어는 종교적 이상주
의를 구현한 슬로건으로서 ‘상징정치’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고양된 정치성은 社友制 및 朝鮮文
化基本調査(=‘전국조사’)의 실시로 구체화되
었다. 특히 전국조사는 『개벽』 독자들에게 조
선의 실제상황을 알림으로써 『개벽』의 ‘미디어적 중심성’을 유지·강화하겠
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개벽』 주도층의 奮闘로 생산된 정보는
‘道號’ 형식으로 게재되었다. <그림 9>는 ‘도호’가 게재되던 초기 국면의 양상

<그림 8> 『개벽』 31호 표지






24) 「편집국의 이야기」, 『개벽』 29호, 1922.11

25) 「편집여언」, 『개벽』 30호, 1922.12

을 담은 것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개벽』 주체들은 '경남도호'와 '경북도호'의 해당 내용을 목차나 본문에서 기존의 공간구조 바깥에 별도로 배치했다. <그림 9>에서는 편의상 그 공간을 '기타'로 명명했다. 도호의 분량이 방대했으므로 기존의 공간에 수용하기엔 부담스러워 별도로 처리할 필요성을 가졌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또한 도호를 특별히 강조하기 위한 목적도 작용했으리라 추정된다. 어쨌든 도호 내용은 갑작스레 생성되어 '변외'의 공간에 실림으로써 기존의 공간구조를 교란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 점이 부담스러웠던지 『개벽』 주체들은 세 번째 도호인 '평북도호' 내용을 '소통의 영역'에 배치했다. 표지에도 한반도 그림의 해당 지역에 누적적으로 붉은 칠을 하던 관행을 중지했다. 다만 '附平北道號'라는 이름만 남겨 놓았을 뿐이며 표지 그림은 '납량호'에 상응하는 관행적인 것으로 대체했다.²⁶⁾ 이런 변화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지속되었다. <그림 10>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그들은

<그림 9> '전국조사' 정보의 위치 이동

호수	발행 연월	계몽	소통	대중	기타
20	2				
21	3				
22	4				
23	5				
24	6				
25	7				
26	8				
27	9				
28	10				
29	11				
30	12				
31	23. 1				
32	2				
33	3				
34	4				① 경남도호
35	5				
36	6				④ 경북도호
37	23. 7			①	
38	8		평북도호		
39	9				
40	10				

26) 『개벽』 38호에 실린 '나무 아래로 배를 저어가는' 풍경은 다른 연도의 8월호에도 자주 실리곤 했던 그림이다.

〈그림 10〉 ‘전국조사’ 정보가 ‘소통의 영역’에 게재된 모습

호수	발행 연월	계몽	소통	대중	기타
41	11	II	II	①	
42	12		강원도호		
43	24. 1	II	함북도호		
44	2			II	創
45	3				
46	4		충남도호	①	
47	5		경기도호		
48	6		경성호		
49	7	II			
50	8	II	경기도호	①	
51	9		평남도호	①	
52	10	□	□ □	①	
53	11		함남도호	□	
54	12	II	함남도호	□	
55	25. 1	I		①	附
56	2			□ ①	
57	3			①	
58	4		충북도호	①	
59	5			□ ①	
60	6		황해도호		①創
61	7	II	II	II ①	
62	8	II	II	①創	
63	11	II	전남도호	①	
64	12	II	전북도호	①	
65	26. 1			II ①創	
66	2			II ①創	
67	3			①創	
68	4			II ①創	
69	5			II II ①創	
70	6			① II	
71	7			①	
72	8			①	

46호 - ‘세계풍운호’ (본문에는 ‘충남도호’ 해당 내용 있지만 표지는 ‘세계풍운호’)

51호 - ‘평남도호’ 해당 내용이 수록되었으나 표지에는 특별한 언급 없음

네 번째인 ‘강원도호’ 내용부터 마지막 순서인 ‘전북도호’ 내용을 모두 ‘소통의 영역’에 게재했다. 표지 그림에서도 해당지역을 표시한 한반도 지도는 신지 않았다. 그리고 ‘충남도호’나 ‘평남도호’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도호를 실었다는 메시지만 ‘○○도호’ 등을 표지에서 누락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개벽』 주체들이 게재 공간이나 표지 구성 등의 측면에서 도호 내용을 점차 ‘범상하게’ 처리한 것은 전국조사에 대한 기대나 효과, 동력 등의 측면에서 그것이 갖는 중요성이 급격히 감소한 까닭으로 생각된다. 전국조사가 비록 끝까지 계속되었고 그 내용이 『개벽』에 실렸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 사회주의적 계급담론이 뿜어내는 강한 정치적 메시지가 전국조사 사업의 정치적 효과를 반감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개벽』의 종교적 이상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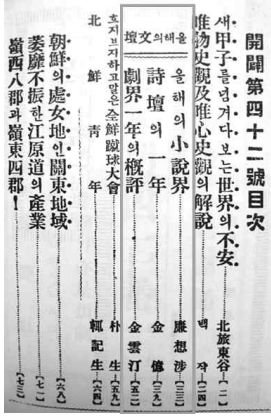

는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으로 轉移되는 양상을 보였다. 사회주의 소개기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던 무렵인 41호부터 목차공간은 격렬한 변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물론 여기서 사회주의의 소개 기사 등장과 목차공간의 격변 사이에 명백한 논리적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개벽』 편집진이 대거 사회주의자로 교체된 적도 없다. 본 논문 2장 1절 '목차공간의 분할과 변동'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개벽』 후반부에 나타난 목차공간의 변동에는 편집감각의 변화, 본문 구성의 무질서도 증가, 편집 역량이나 일손의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편집 기술상의 변화 등의 요인도 배제할 수 없다.²⁷⁾ 그러나 이 무렵 『개벽』의 주요 편집진은 계급문제와 사회주의에 관심을 갖고 좌경적 성향의 논설과 기사를 비중있게 다룬 것은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개벽』 편집자 자신들도 좌경적 성향의 글을 발표하기 시작했다.²⁸⁾ 또한 이 시기 목차공간의 격변과 관련하여 <부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개벽』 주체들이 '계몽의 영역'에 집어넣어 강조하려 했던 기사가 대부분 사회주의 관련 기사인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⁹⁾ 이와 같이 사회주의 기사의 본격화를 즈음한 표상공간의 변동은 '도호' 정보의 그것보다 더욱 급진적으로 나타나 앞 시기에 형성된 3개 영역 구분선을 크게 교란시켰다.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개벽』 42호에서는 그 이전에 '계몽의 영역'에 실리지 않았던 '올해의 문단'이나 스포츠 관련 동향 등이, 『개벽』 46호에는 '소통의 영역'에 주로 실렸던 국제 동향 등이 '계몽의 영역'에 실렸다.

27) 특히 잡지 매체의 편집기술이나 유행의 변화양상이 이 무렵의 『개벽』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는가 유무, 그리고 만약 작용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끼쳤는가 등에 관해서는 향후 폭넓은 자료 검토를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28) 『개벽』의 좌경화와 『개벽』 편집진의 좌경 논설 발표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김정인, 「『개벽』을 낳은 현실, 『개벽』에 담긴 희망」, 임경석·차혜영 외,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07, 258~263면 참조.

29) 『개벽』 44호의 경우, 이전 같으면 '소통의 영역'에 들어가야 자연스러울 시평, '원편을 밟고서'나 '레닌은 죽었습니다'가 '계몽의 영역'에 실린 사실이나, 『개벽』 59호에서 「민족감정의 심리와 그 사회적 의의」라는 長谷川如是閑 글의 번역문과 『개벽』 69호에서 배성룡의 「계급의식의 이론」이 그 쪽수의 위치로 보아 모두 '소통의 영역'에 실려야 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목차상 '계몽의 영역'에 배치된 점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림 11〉 ‘3개 영역’의 교란

 <p>開闢第四十二號目次 새.甲子를년.다.보.는.世界의.不安. 唯物史觀及唯心史觀의 解說 詩壇의 一年 劇界의 一年의 概評 北.鮮.年 朝鮮의 處女地인 關東地域 萎靡不振한 江原道の 産業 嶺西八郡과 嶺東四郡!</p> <p>北.鮮.年 (二) 康想涉 (三) 金.準 (五) 金.雲.打 (六) 朴.紀.生 (七) 崔.記.生 (八) 崔.記.生 (九) 崔.記.生 (十) 崔.記.生 (十一) 崔.記.生 (十二)</p>	 <p>四月號目次 事.必.歸.正 勢力均衡主義와 國際協調主義 勞働黨天下인 英國의 歐大陸의 新動向의 佛國 反動的인 王國인 伊太利의 動搖의 始作하는 本國의 第一至金主權의 中國의 實情의 日本 情政國列 地球星一數字로 見.世.上 世界社會主義運動의 現勢 赤色組合과 藍色組合 러시아의 共產黨 最近의 世界的인 大風雲兒 (五卷) 一. 記者 (四八) 二. 記者 (五一) 三. 記者 (五二) 四. 記者 (五三) 五. 記者 (五四) 六. 記者 (五五) 七. 記者 (五六) 八. 記者 (五七) 九. 記者 (五八) 十. 記者 (五九) 十一. 記者 (六〇) 十二. 記者 (六一)</p>
42호(1923.12)	46호(1924.4)

3) ‘계몽의 분화’와 공간의 균열 (48~72호)

제2기 후반부에서 사회주의 기사가 목차공간을 장악하다시피 하던 상황은 이 시기에 들어서 ‘조정국면’을 맞이했다. 종교적 이상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긴장관계는 제2기 후반부에서 이미지 중심형 표지의 ‘실종’ 현상을 통해 징후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은 『개벽』에 실린 지도나 그림, 그리고 ‘창조’라는 에스페란토어 등의 ‘象徵’보다는 ‘開闢’이라는 ‘記號’를 더 선호했는지도 모른다.

거의 1여년의 ‘침묵’을 깨고 48호의 ‘계몽의 영역’에 복귀한 이돈화는 ‘계급 의식’에 대한 ‘초월의식’의 우위를 강조하면서 점차 사회주의와의 차별성을 표명해 나갔다. 그 결과 목차공간 전체에서는 사회주의적 영향력이 지속되고 공간의 격동이 지속되었지만,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계몽의 영역’에서는 이돈화, 김기전 등 창간주체의 글이 핵심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사회주의적 언설과 기묘하게 ‘공존’하고 있었다.

〈그림 14〉 '창작' 부문의 독립 양상

호수	발행 연월	계몽		소통		대중	기타
60	6			: 황해도호	□	①創	
61	7					① □	
62	8					①創	
63	11			전남도호		①	
64	12			전북도호		①	
65	26. 1		□	□ □ □	□	①創	
66	2			□	□	①創	
67	3		□	□	□	□ ①創	
68	4		□	□	□	①創	
69	5		□		□	①創	
70	6				□	①	
71	7					①	
72	8					①	

3개 영역은 영역 내부에서든 영역 간에서든 심각하게 균열되어서 제1기와 같은 통일과 조화를 회복하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IV. 맺음말

본 논문은 두 개의 전제 위에서 출발하였다. 첫째는 『개벽』의 표상공간을, 종교적 이상주의에서 비롯하는 초월적 힘과, 문화적 계몽을 위한 매체로서의 일상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지향이 상호 작용하는 공간으로 본 것이며, 둘째는 매체로서의 일상적 역할이 반영된 『개벽』의 목차공간을 '계몽의 영역', '소통의 영역', '대중의 영역'으로 나눈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필요로 했던 것은 『개벽』을 '종합적'으로 보고자 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벽』을 '식민지적 미디어 주체'로서 형상화하는 것이다.

식민지시기에 창간된 미디어 '주체'로서의 『개벽』은, 근대 주체 일반이 '去

勢의 위협'을 통과하는 경험과 비슷하게, 탄생과정에서 식민지 조선사회로부터 '정치성의 억압', '종교성의 억제'를 강요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후 매체로서 일상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중의 기호에 대한 부응과 상업적 요소의 고려, 사회적 公器로서의 역할, 계몽운동에서의 주도성 전지 등과 같은 욕구 사이에서 항상적인 불균형과 긴장에 직면했다. 천도교의 종교적 이상주의는 『개벽』의 논조를 '계몽적 종합월간지'라는 '順治'된 틀 너머로 계기적으로 밀어 올리는 '무의식적 기제'로 작용했다. 『개벽』의 '自我'를 구성하는 중심인물은 이돈화와 김기전이었다. 이돈화가 『개벽』 자아의 '진정성'을 대표한다면, 김기전은 '소통성'을 대표한다고 비유할 수도 있는 바, 범박하게 말하자면 양자는 각각 '계몽의 영역', '소통의 영역'을 主宰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머리말에서 언급한 쟁점을 재론해 보자. 선행연구들은 『개벽』 전반부에서는 서구의 개조론 영향, 특히 문화주의의 영향이, 후반부에는 사회주의의 영향이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평가, 특히 후반부의 사회주의 영향에 대한 평가에서는 '사회주의가 득세하는 외부적 상황 변화에 『개벽』 주도층이 수동적으로 동조하는 데 그쳤다'는 입장과, 애초 '종교적 이상주의를 내장한 『개벽』 주도층이 외부적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주의적 가치를 자기화해 나갔다'는 입장으로 갈라진다. 즉 『개벽』 후반부 지면에 사회주의 기사가 빈발하는 상황에 대해, 전자의 입장은 객관적인 상황 변화를 강조하고, 후자의 입장은 주도층의 내적 자기변화라는 주관적 요소에 더 주목한다.

본 논문에서는 주·객관적 요소를 절충하는 입장에 서서 상황을 좀 더 동태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본 논문에서는 『개벽』 주도층이 애초 '종교적 이상주의'를 내장하고 있었고 그 바탕 위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친연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후자의 입장과 비슷하지만, 사회주의의 득세에 대해 그렇게 '前向的'으로 대응했다고는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전자에 더 가깝다. 후반부 시점부터 이미 이돈화가 주력한 사회주의와의 차이화 노력, 천도교적 사회개조의 입각점 확보 시도 등이 주도층 전체의 동향을 대표하는 '위상'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이 두 선행연구와 구별되는 더 큰 차이점은 이돈화와 김기전의 '분산적 행보', 그리고 '계몽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소통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차이에 주목하고 양자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면서 전체적인 변동을 포착하고 재구성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런 파악에는 『개벽』에서 그들이 가진 질적 비중, 즉 그들의 논설이 가진 ‘가중치’를 적극 고려했음은 물론이다. 이 점이야말로 ‘표상공간’을 다루는 본 논문이 『개벽』에 관한 연구사적 지형에 적극 개입하고자 했던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개벽』의 '表象空間'에 나타난 매체적 성격

참고자료

〈부표 1〉 『개벽』 표지의 유형별 분포와 시기구분

호수	발행 연월	텍스트	이미지	혼합	호수	발행 연월	텍스트	이미지	혼합
1	20. 6		○		37	23. 7			○
2	7	○			38	8		○	
3	8		○		39	9	○		
4	9		○		40	10	○		
5	10	○			41	11	○		
6	12	○			42	12	○		
7	21. 1		○		43	24. 1			○
8	2	○			44	2	○		
9	3	○			45	3	○		
10	4	○			46	4	○		
11	5	○			47	5	○		
12	6	○			48	6	○		
13	7		○		49	7		○	
14	8		○		50	8	○		
15	9		○		51	9	○		
16	10	○			52	10	○		
17	11		○		53	11	◎		
18	12		○		54	12	◎		
19	22. 1	○			55	25. 1	◎		
20	2	○			56	2	◎		
21	3	○			57	3	◎		
22	4	○			58	4	○		
23	5	○			59	5	○		
24	6	○			60	6	○		
25	7	○			61	7	○		
26	8		○		62	8	○		
27	9		○		63	11	○		
28	10		○		64	12	○		
29	11		○		65	26. 1	○		
30	12	○			66	2	○		
31	23. 1			○	67	3	○		
32	2	○			68	4	○		
33	3	○			69	5	○		
34	4			○	70	6	○		
35	5	○			71	7	○		
36	6			○	72	8	○		

비고: ◎ = 한글 제호 '개벽'(53~57호)

〈부표 2〉 『개벽』 목차공간의 형태별 변동양상

호수	발행 연월	계몽		소통		대중	기타
1	20. 6						
2	7						
3	8						
4	9						
5	10						
6	12						
7	21. 1						
8	2						
9	3						
10	4						
11	5						
12	6						
13	7						
14	8						
15	9						
16	10						
17	11						
18	12						
19	22. 1						
20	2				㉠		
21	3				㉠		
22	4	㉠			㉠		
23	5	㉠			㉠		
24	6	㉠			㉠		
25	7	㉠	㉠			㉠	附
26	8				㉠		
27	9	㉠			㉠		
28	10	㉠			㉠		
29	11				㉠		
30	12	㉠			㉠		
31	23. 1	㉠			㉠	創	附
32	2	㉠			㉠		
33	3	㉠	㉠		㉠		
34	4					㉠	경남도호
35	5						
36	6					㉠	경북도호
37	23. 7				㉠		
38	8			평북도호	㉠		
39	9						
40	10				㉠		

(뒷 면에 계속)

『개벽』의 '表象空間'에 나타난 매체적 성격

41	11						①	
42	12							
43	24. 1							
44	2							創
45	3							
46	4						①	
47	5							
48	6							
49	7							
50	8						①	
51	9						①	
52	10	□	□	□	□	□		①
53	11						□	
54	12						□	
55	25. 1						①	附
56	2						□	①
57	3							①
58	4						①	
59	5						□	①
60	6							①創
61	7							①
62	8							①創
63	11							①
64	12							①
65	26. 1							①創
66	2							①創
67	3							①創
68	4							①創
69	5							①創
70	6							①
71	7							①
72	8							①

- 비고: 1) 46호—「세계풍운호」(본문에는 '충남도호' 해당 내용 있지만 표지는 '세계풍운호')
- 2) 51호—「평남도호」 해당 내용이 수록되었으나 표지에는 특별한 언급 없음
- 3) '||', '||', '||', '||', '□' 등은 목차공간을 분할하는 각종 기호들을 실제 모양에 가까운 기호로 표기한 것임.
- 4) '①' 표시는 面數가 새번호로 시작한다는 의미임.
- 5) '創'은 문에 가운데 '창작'물을 담은 공간이라고 표시된 곳을 가리킴.
- 6) '附'는 부록이라고 명기된 것을 표기한 것.

〈부표 3〉 조각물의 유형별 분석

호수	발행연월	연번	개별이동(A)		집단이동(B)		기타(A,B중에서)		영역
			단순진퇴	개별편입	내부흔거	집단진퇴	류음 관련 ("류음표시")	영역 이동	
41	11	01 02 03 04	85/100/92 92/106/99		108/99/102/99/107/84/66/110	66/110/111/113/113/112/104	(수필) "◇" (시사)		소통 소통 소통
42	12	05 06		100/106/(102) 114/66/(116)			"=" " "=" "		소통 소통
43	24. 1	07	115/131/115						소통
44	2	08 09 10	30/14/38 122/186/140			4/17/22/11	"[시평]"		계몽 소통 대중
45	3								
46	4								
47	5								
48	6								
49	7	11 12	57/65/59	56/15/54	56/15/54		"1"(학교) "11"(전해들)	계→소	소통 소통
50	8								
51	9								
52	10	13 14	125/128/127 (136)/146/140				秋窓萬感/"□"		소통 대중
53	11								
54	12								
55	25. 1	15 16 17 18 19 20	48/61/57 80/86/79 [36/54/33] [91/85/83]		23/109/99/106/28 57/117/94/119/70	23/109/99/106/28 57/117/94/119/70	"◇"(황소) "△"(세태) (이광수론)		소통 소통 소통 대중 대중
56	2	21 22		(64)/46/72		[30/56/61/81/81/82/82/41]	"□" 문단시평/"○"		소통 대중
57	3	23 24 25	51/59/56 69/79/77			77/72/[1]	시평/"□"		소통 소통 소통
58	4	26	49/57/53						소통
59	5	27 28 29	19/49/38 [42/28/44]			48/60/56	"~"(시사)	소→계	계몽 소통 대중
60	6	30 31 32	44/82/50 62/95/87			32/39/41/30/100/44	"ㄷ"(시사)		소통 소통 소통
61	7	33 34	66/100/91			62/79/89/66	(중국)		소통 소통
62	8	35	83/64/89						소통
63	11	36 37	21/38/31 31/55/35						소통 소통
64	12	38 39	40/52/45 64/76/74						소통 소통
65	26. 1	40	79/50/83						소통
66	2	41	75/62/82						소통
67	3	42		(81)/72/87			"□"(시사)		소통

(뒷 면에 계속)

『개벽』의 '表象空間'에 나타난 매체적 성격

호 수	발행 연월	연 번	개별이동(A)		집단이동(B)		기타(A,B중에서)		영역
			단순진퇴	개별편입	내부혼거	집단진퇴	묶음 관련 ("묶음표시")	영역 이동	
68	4	43 44	59/ 68 /66 74/ 82 /74						소통 소통
69	5	45 46 47 48 49	10/ 46 /51 10/46/ 51 /26 26/ 40 / 46 /28		55/ 74 / 81 / 78 / 85 / 79 / 55 /86	115/ 61 / 65 /[1]	잡저/"□" 訪花隨柳紀/"〓	소->계	계몽 소통 소통 소통 대중
70	6	50 51 52	4/ 53 /36 86/ 100 /95		95/ 93 / 81 /97		(시사)		소통 소통 소통
71	7	53 54	[13/ 9]		[1/ 14 / 40 / 22 / 23 /13]	[1/ 14 / 40 / 22 / 23 /13]	"〓"(견해들)		대중 대중
72	8	55 56 57 58 59	73/ 113 /79 79/ 112 /90 9/ 2 /17			55/ 75 /73 79/ 103 / 106 / 110 /79	"◇·〓"(시사) (시사)		소통 소통 소통 소통 대중

비고: 1) '연번'은 임의로 붙인 것이다.

- 2) 각 숫자는 목차의 기사에 달린 면수로서 각 기사가 시작하는 본문 첫 부분의 면수를 나타낸다.
- 3) 연번 '05'의 '100/~~106~~/(102)'에 보이는 괄호('(')')는, 괄호 속 기사가 나머지 기사(여기서는 100과 106의 두 기사)와 내용 혹은 영역상 구분되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 4) 연번 '19'의 [36/54/~~33~~]에 보이는 대괄호('[]')는 괄호 속의 기사(여기서는 세 기사)가 특정 기호 등에 의해 하나로 묶여 있는 경우를 표시한 것이다.

투고일 : 2008.1.18

심사일 : 2008.5.6

심사완료일 : 2008.5.13

• 참고문헌

- 이기현, 『미디어로지—사회적 상상과 매체문화』, 한울아카데미, 2003
- 김건우, 「『개벽』과 1920년대 초반 문학담론의 형성」, 한국현대문학회, 『한국현대문학연구』 19, 2006
- 김정인, 「『개벽』을 낳은 현실, 『개벽』에 담긴 희망」, 임경석·차혜영 외,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07
- 崔洙逸, 「1920년대 문학과 <開闢>의 위상」,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2
- 한기형, 「『개벽』의 종교적 이상주의와 근대문학의 사상화」, 임경석·차혜영 외,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07
- 許 洙, 「일제하 李敦化의 사회사상과 天道敎—‘宗教的 啓蒙’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A Medium Character Shown in *Gae-Byeok's* Imagery Space : Centering on the analysis of its cover and contents

Hur, 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nthetically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Gae-Byeok" as a modern media by analyzing *Gae-Byeok's* imagery space centering on its cover and contents. First, as to the cover, among the "text-oriented type" showing the overall even distribution, "image-oriented type" appeared in concentration on the 1st to the 30th issue and "mixed type" was focused on the short period from the 31st to the 43rd issue. Contents space can be divided into provinces of "enlightenment," "communication" and "the public," while periodically it is divided into "formation period" (1st to 19th issue) with latent inter-province differentiation, "stability period"(20th to 40th issue) in stable continuance with a divisional line, and "turmoil period"(41st to 72nd issue) with an abrupt disturbance in provincial division.

When synthetically grasping the vicissitude in the imagery space in relation to major changes in its tone of argument, the 6-year period when "Gae-Byeok" was in publication can be divided into three times. In the 1st time (1st to 30th issue), the media space with a weak religious and political character continued in functional division of three provinces, and the leading class of "Gae-Byeok" carried on endeavoring to make propaganda for cultural enlightenment while making the most of each province. The 2nd time (31st to 47th issue) saw even livelier activity of this leading class by the opportunity of a permissive measure for articles of politics and current affairs. They carried the results of the basic survey of Chosun culture, which they had kept putting ahead, on *Gae-Byeok* in consecutive order. In the

former part of the 2nd time, the voluminous amount of the outputs once temporarily disturbed the stable three-province composition. In the latter part, with a full-scale introduction of socialism-related articles the spatial stability was greatly perturbed and the division of three provinces was greatly disturbed, too. In the 3rd time (48th to 72nd issue), among continued spatial upheaval, generally the socialist influence went on, but in the "province of enlightenment," the writings by founding subjects including Lee Don-hwa kept a core status, exhibiting the aspect of "coexistence" with socialistic essays.

Like thi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imagery space of *Gae-Byeok* was, in space, divided into three provinces by function and went on changing unevenly, in time, by each province, a new approach can be made on the major arguments surrounding so-called "spread of socialism" which occurred in the latter part of "Gae-Byeok." That is, the "socialization" trend in the latter period tone of arguments was based from the beginning on the "religious idealism" possessed by the leading class of *Gae-Byeok*, but even in the overall situation of socialism the core class like Lee Don-hwa, etc. made efforts to maintain the standpoint of "Chondoism-based social remodeling" differentiated from socialism, and as a result, it is considered that the tone of *Gae-Byeok* at this time was in a state of unstable balance between the two viewpoints.

Key words : imagery space, medium, province of enlightenment, province of communication, province of the public